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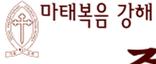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주께서 운명하시던 순간

(마 27:45-56)

## The Moment when Jesus Passed Away

(Matt. 27:45-56)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 가운데 예수님에게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완전히 부여진바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크게 외치시고 운명하신 후에 세 가지의 사건을 증거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In the midst of physical sufferings that cannot be explained by word, Jesus passed away on the cross by endearing God's wrath. Therefore, there is no more purgation from sins to Christians who believe in Jesus. After He shouted, 'It has been done' and passed away, three incidents follow:

### 1.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51절)

지성소란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언약의 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두꺼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함께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그 해 대제사장으로 뽑힌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대제사장의 의복이나 정결예식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다면,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 1. The curtain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from top to bottom(v. 51)

The temple is the place where God presences exists, and there is also God's covenant box.. Nevertheless, the thick curtain that covered the temple vertically was completely torn and opened from top to bottom, by the time when Jesus Christ passed away. Once a year, the chief priest who was chosen as a Chief Priest every year could enter the temple. If there were some flaws for the Chief Priest's costume and clear and neat ceremony,

찢겨진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히 10:19-20).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2. 지진과 함께 바위가 타지고 무덤들이 열려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51-53절)

본문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당시 지진이 일어났고,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휘장을 열어주셨듯이, 죽음의 상징인 무덤을 열어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제 1차 부분적 부활로 보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우주적인 부활로서 제2차 부활의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he could no help dying in the Temple. That's why the Temple is really a dreadful and fearful place. Incidentally, the curtain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from top to bottom at the time when Jesus passed away.

The torn curtain means the torn body of Jesus Christ and the death of Jesus Christ (Heb 10:19-20). Owing to Jesus Christ's death, we can enter the living road opened in the middle of curtain.

### 2. By the earthquake the rock was split, the tombs broke open ,and holy people were raised to life

The earth shook at time when Jesus passed away in the text, and by the earthquake, the text proves that the tombs broke open and the bodies of many people who had died were raised to life. It is said that just as God opens the curtain, as God opens the tomb of the death symbol for us. There are many theologians who know this incident as the first part of resurrection. And then, they assert that when Jesus comes again, there will be the second incident of resurrection as a universal resurrection.

### 3. 로마 군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 있었다(5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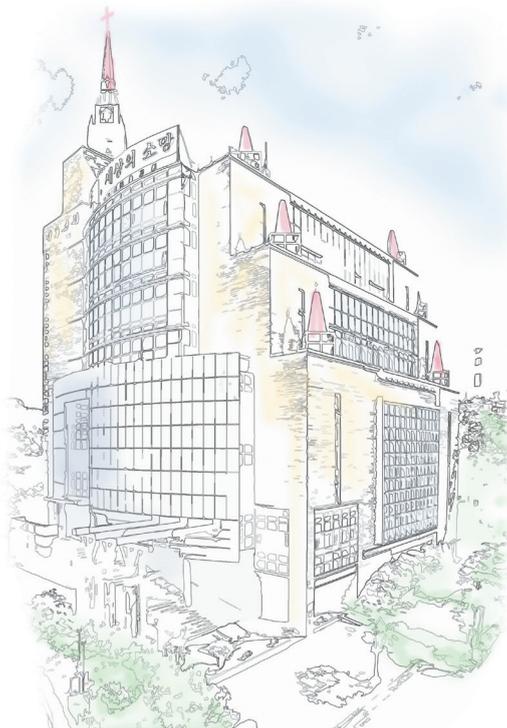
백부장과 지키던 자들이란 로마 군인들로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첫 번째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고백한 사람이 로마사람, 즉 이방인이었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세계선교가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 3. There were some who confessed belief among Roman soldiers(54)

The centurion and Roman soldiers who were guarding Jesus are the people who arrested Jesus and killed him. Such men looked at Jesus who died on the cross and confessed, "Surely he was a Son of God". With the death of Jesus Christ, the fact that the first Romans, in other words, the Gentiles who confessed that Jesus was a Son of God caused worldly mission work to begin in earnes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난으로 안식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의 슬픔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리심을 당하시므로 우리들이 용납되었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며,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들이 속죄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든든히 붙들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My beloved Christians,  
By the dishonor of which Jesus was encountered, we became to receive glory. By Jesus' pains of the cross, we could receive a rest, and by his sorrow, we could enjoy joy. By Jesus' forsaking, we are forgiven, by Jesus' receiving a curse, we can enjoy a blessing, and by Jesus' bleeding, we became atoned. By being thankful for this grace to God,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the people of faith by holding the cross of Jesus Christ and by taking victor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2015 사랑의 바자, 4일 앞으로!

## 17일(목), 18일(금) 양일간

온 성도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한 2015 사랑의 바자(위원장 : 홍성주 장로)가 금주 17일과 18일 양일간 열린다. 바자는 17일(목) 오전 10시 교회 1층 로비에서 내외빈을 모시고 개회예배에 이어 테이블커피팅으로 개장하여 18일 오후 7시 폐장한다.

매장의 위치는 1층로비에는 액세서리, 화장품, 생활소품, 교회 앞마당에는 교구별 매장이 자리하였으며 돌성경 앞에는 농어촌100교회 특설매장, 에바다부, 호산나대학, 글로벌 토속시장이 2층 여성의를류, 4층 남성의를류, 501호에 브랜드 의류, 601호 헌옷매장, 7층 브랜드 여성의를류가 있으며 8층에는 먹거리, 9층에는 카페가 운영된다.

사랑나눔운동기간 중 기증된 도자기, 회화, 명품차잔세트 등 상품을 대상으로 18일 12시, 8층 식당에서 경매가 이루어진다.

바자 기간 중 이벤트의 하나로 다락방원들이 바자

현장에 모여 사진을 찍어 카톡으로 사연과 함께 본부(010-2242-6606)에 보내면 많이 참석한 다락방과 아름다운 사연을 보내 준 다락방을 뽑아 푸짐한 상품을 시상한다. 또한 봉사자들 중 추천하여 시상하기로 하였다. 많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지난주에는 도자기, 그릇, 침구, 삼푸, 주방제품, 식사권, 다수의 중고핸드폰, 외국 동전, 헌옷 등 기증품과 다수 기부금 등이 접수되었다.

### 사랑나눔 기부(약정)자 명단

(1교구) 박경숙, 김성자 (3교구) 서양지, 제현오, 제연주, 제명수, 서선옥 (4교구) 김규태 (5교구) 이관모, 최미아, 심화숙, 장효정, 박정란, 김양희, 김은희, 전미경, 김민아, 전인숙 (6교구) 양지훈 (8교구) 김흥기, 이새롬 (11교구) 장호림 (14교구) 김애순, 윤정민 (16교구) 김미선, 염혜영 (특별) 신연희, 수서경찰서장 총명 윤희근 (기타) 무명



## 사명자대회, VIP 초대 작성카드 제출

### 지난 주 825명이 2,913명 VIP작성 오늘, 다음 주일 계속 작성

서울교회 설립기념주일 50일을 앞두고 시작되는 2015사명자대회가 10월4일(주일) 발대식을 갖고 시작된다.

지난 주부터 10월 23일(금), 25일(주일) 양일간 진행되는 새생명축제에 초대할 VIP(전도대상자)들을 기대하며, 작성하며, 기도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지난 주 825명이 2913명의 VIP를 작성하였다.

5,000명의 VIP, 1,000명의 방문자, 300명의 결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다음 주일에도 추가로 작성카드를 제출한다. 한 주간 마음으로 작성하고 기도로 준비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을 초대하는데 모든 성도가 동참하길 바란다.



##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범위 : 마태복음 5장 / 요한복음 15장 / 고린도전서 13장  
예선 10월 11일(주) 교회학교별 / 본선 10월 16일(금)



## 목사님, 궁금해요!

### 이종은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84)

(문 184) 고린도전서 10:8 말씀과 출애굽기 32:28 말씀은 상충되는 말씀인가요?

(답)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세 때 일을 상기시키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과 음행을 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들 중의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고전 10:8)고 하였으나 출 32:28 말씀에 의하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삼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출32장에서는 아론이 백성들과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노래하며 그 앞에 제사할 때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명을 받고 삼천 명의 백성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출32:35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의 만든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이만 삼천 명은 레위인들의 칼에 죽은 자 삼천에 하나님의 진노로 내린 전염병으로 죽은 자를 포함시킨 숫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있을 때 모압 여인들이 그들의 바알브을 숭배에 초대하여 우상숭배를 하고 간음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염병이 퍼져 백성들이 죽임을 받은 사례가 싯딤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싯딤에서 음행하던 두 남녀의 배를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으로 꿰뚫어 죽임으로 비로소 그 염병이 그쳤다고 했습니다.(민25:8) 당시 그 염병으로 죽은 자가 이만 사천 명이라는 것입니다.(민25:9)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고전 10:7)에서 인용한 말씀은 싯딤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 섬김 죄를 영적 음행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많은 비평주의 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보낸 서신에서 민수기 25장에 나타난 싯딤 사건을 인용한 것이라 하여 바울의 수적 오류를 지적하고 합리적 해석을 해 보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에 23,000명이 죽었고 전체로는 24,000명이었다고 하거나 사본 상의 오류 또는 바울의 구약성경에 대한 기억의 오차라고 주장한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이 대략 말한 것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으나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 이들은 이 같은 오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레위인의 칼에 죽은 자와 염병으로 죽은 자의 수를 합친 수를 바울이 언급했다고 보는 것이 좋은 해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사명자대회 - 새생명축제 VIP작정

#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송영준 집사 (사명자대회 진행분과장)

서울교회에서 해마다 10월에 진행되는 사명자대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사명자대회 기간동안 대회본부에서는 9개의 분과를 만들어 장석남 목사님과 오광환 장로님(본부장님)을 구심점으로 하여 사명자대회 본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세 가지의 핵심 축으로 행사를 열심히 준비중입니다. 특별히 사명자 대회 기간동안 전도운동의 일환으로써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VIP 새생명 축제가 열리게 되는데요, 작정한 5,000명의 VIP를 위해 교회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와 관련하여 8월 30일 ~ 9월 13일 기간동안 주보삼지에 'VIP작정카드'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작정카드란에 평소 전도를 하고 싶었거나 생각해 두셨던 분들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름을 모르시면 옆집 아저씨 혹은 옆집 아줌마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작년, 혹은 재작년에 VIP 대상으로 쓰셨는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신다면 다시 쓰셔도 됩니다. 교회가 해당 VIP를 품고 기도하기 때문

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VIP분들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시고, 그 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도 안 됐는데, 앞으로 되겠어?” 라는 생각보다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작정카드 작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성도님들의 적극적 동참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만민에게 전도

## 의정부 안디옥 열방교회를 다녀와서 - 터키전통 음식, 케밥으로 다가오는 사랑의 선교 바자 -



이중욱 집사 (3교구)

8월 23일 2부 예배와 신앙강좌가 끝난 후 서아시아 국내선교 기도팀 일원으로 의정부에 위치한 안디옥 열방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안디옥 열방교회는 4개 국어 통역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가족을 떠나 한국에 와서 일하는 터키, 우즈벡, 러시아 등의 근로자들을 위해 의료봉사, 노무, 의료보장 등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섬기고 계셨습니다.

선교사님이 한국어, 터키어로 동시에 설교하면 한국어를 잘하는 우즈벡 청년이 바로 듣고 우즈벡어로 동시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신도들은 터키인이고 러시아, 우즈벡, 고려인들이 몇 명 있었는데 한 분 한 분 귀한 영혼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 쏟는 선교사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느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과 예배를 함께 드린 후 다과를 나누면서 그들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운 이국생활, 작업의 고됨을 느낄 수 있었는데 교회에 나

와 사랑의 위로와 은혜로 축복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며 열심히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열네 살 때 부모님과 서울에 여행 왔다가 한국이 너무 좋아서 어린나이인데도 혼자 강남 역삼동에 정착하여 주님의 자녀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우즈벡 청년 파르비스, 그는 양재동 온누리교회 예배를 드린 후 매주 멀리 의정부 안디옥 열방교회에 와서 우즈벡어 통역 봉사를 합니다. 또 20대로 보이는 우리나라의 예쁜 한 여학생은 이곳에 와서 봉사하며 터키어로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주의 일에 앞장서서 열심을 다하는 청년들로 인해 큰

도전을 받았습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김종일, 백순미 선교사님과 열정으로 봉사하는 젊은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 모두 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더욱더 큰 은혜가 넘치는 안디옥 열방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랑의 바자 때 안디옥 열방교회 성도 중 터키인 요리사 두 분이 직접 오셔서 터키의 전통 음식인 케밥을 맛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며 건강은 물론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그리고 모두 귀한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기치 않았던 힘들고 슬픈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럴 때 제일 먼저 슬픔의 현장에 달려가 찬양으로 위로하고 마지막 하나님 곁으로 떠나는 순간까지 환송의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가 서울교회의 갈렙찬양대입니다. 위리가 되고 천국가는 길에 찬양으로 영광돌리는 갈렙찬양대에서는 찬양대원을 보충하고자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누구나 환영하며 특히 현재 찬양대원으로 봉사하시는 성도이시면 대 환영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 교회 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천국시민양성 - 성경암송대회를 준비하며

##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박선영 성도 (유치부 교사)

유치부는 말씀암송에 욕심이 많 습니다. 유치부는 매주 아이들에게 암송숙제를 내줍니다. 이 숙제는 바로 “하루 두 번, 성경암송 매일 읽기 표”입니다. 올해 성경암송대회 범위 인 마태복음(5장), 요한복음(15장), 고린도전서(13장) 말씀이 적힌 암송 표를 주일에 나눠주면 아이들이 하루 에 두 번씩 읽고, 읽은 날을 표에 체크 해서 주일에 냅니다. 저는 매주 작은 상을 준비해 암 송 숙제를 해 온 아이들을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유치부 예배 후에는 예배에 온 모든 친구 들이 함께 성경암송 시간을 갖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올해 초부터 매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유치부 친구 들 대부분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 라도...”로 시작되는 고린도전서 13장 앞부분 정도는 외우고 있습니다.

말씀암송의 저변을 넓히려는 유치부의 암송프로그 램은 본 대회에서의 좋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작년 대회에서 유치부 어린이가 교육1국 대상을 받은 것을 포함해, 총 13명의 개인전 수상자 중 8명이 유치부 친 구들이었습니다.

성경암송은 성장기 어린이에게 여러 가지 좋은 영 향을 미칩니다. 하얀 도화지와 같은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자극은 없을 것입니다. 뜻 을 알지 못하고 외운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 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 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아이, 그 말씀이 입에서 항상 떠나지 않는 아이가 성장하면 얼마나 멋진 하나 님의 일꾼이 될까요? 이 즐거운 소망이 제가 오늘도 유치부 친구들에게 열심히 성경암송을 가르치는 이 유입니다.



## 호산나대학·(의)참여원의료재단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산·학 업무협약(MOU) 체결’

2015년 9월 8일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김선태병 원장)에서 호산나대학(박노철학장)과 강남구립행복 요양병원 간 산·학 업무협약에 관한 협약식이 열렸 다. 업무협약은 △신규인력 채용이나 퇴사로 인한 재 고용시 대학에서 추천 받은 학생을 우선 채용 △ 학 생들의 현장실습이나 견학 등에 관한 협력 △ 채용 된 인력의 안정적 직장생활 유지를 위 해 학교에서 지속적인 사후지도와 관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날 김선태 병원장은 “앞으로도 대학과 좋 은 관계를 가지기를 바라며, 호산나대 학 출신 학생들이 항상 웃는 얼굴로 성 실히 근무하고 있어 병원에 많은 도움 이 된다”고 학교에 감사함을 전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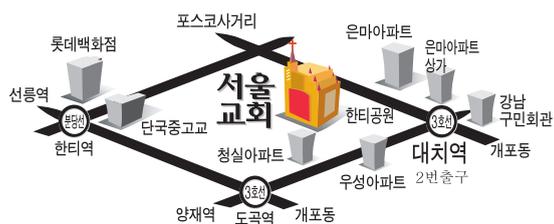
에 호산나대학 이동기부학장은 “현재 본교 출신 졸업 생 18명이 요양병원에 취업해 있고 학교에서도 학생 들을 준비된 인력으로 만들기 위해 현장 맞춤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준비된 학생들 취업 뿐만아니라 취업 후 사후지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 다”라고 약속했다.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 배	오후 1시 30분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본 당 II 층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0회 총회 개최

9월 14일(월)~17일(목)  
청주 상당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0회 총회가 9월 14일 (월) 오후 2시부터 17일(목) 오후 7시까지 “주 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고후 5:18~21, 창 33:1~4)이라는 주제로 청주 상당교회에서 개최된 다. 우리교회에서는 총대로 박노철 담임목사, 오 정수, 신용식 장로가 참석한다.

### ■ 특별찬양 ■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아멘관현악단(대장:김 혜언 집사)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임범창 집사의 지휘로 “주의 이름 높이어”, “내 맘 에 주어 소망되소서”, “비추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등 일곱곡을 연주하며 오르간에 조현정 집사와 팀파 니스트 윤주일 집사가 함께 연주한다.

###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6일(수)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상임대표, 공동대표 연석회의에 참석한다.
- 부임 : 7교구 윤주일 집사 프리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타악기 수석주자
- 연주회: 2교구 김현정 집사 파이프오르간 독주회(할렐루 야 찬양대 오르가니스트), 영선아트홀 9월17일(목) 오후7시 30분
- 득남 : 6교구 엄창호 성도 김은정 집사 가정 (김병용 집 사, 김성은 권사의 손자)
- 주일식당봉사 : 빌립 선교회(9.13) 안드레 선교회(9.20)
- 금주의 식사 제공 : 교회제공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나성 영락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담임목사 님께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시어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2. 사랑나눔운동에 동참하여 이웃과 함께 하는 2015 사랑의 바자가 되도록
3. 5,000명의 VIP, 1000명의 방문자, 300명의 결신자 를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2015 사랑자대회, 새생 명축제가 되도록
4. 서울성경대학, 열린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적 재충 전과 전도의 기회가 되도록